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모애착과 자기역량지각

Attachment to Fathers and Mothers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about Friendship Quali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홍성희(Sung-Hui Hong)[1)]
김경희(Kyung-Hee Kim)[2)]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friendship quality by grade, sex and father/mother attachmen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ther/mother attachment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on quality of children's friendships. There was a mean difference in self-perceived competence by grade and father/mother attachment. While both 3rd graders and 5th graders showed high levels of father/mother attachment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5th graders showed higher self-perceived competence than 3rd graders. There was a mean difference in friendship quality by grade, sex and father/mother attachment : 5th graders showed higher friendship quality than the 3rd graders, and girls showed higher friendship quality then boys. In conclusion,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was influenced by father/mother attachment and social acceptance.

Key Words : 부/모애착(father/mother attachment), 자기역량지각(self-perceived competence), 친구관계의 질(friendship quality).

Ⅰ. 서 론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들의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많아지게 된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활동 중심이 됨으로써 아동에게 친구는 자신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친구를 통해 아동은 사회에서 무엇이 수용되지 않는지를 배워가며 사회의 가치관을 흡수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배우며 협동심과 타협도 알게 된다. 또한 친구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체를 발견하며,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1) 전라남도보육정보센터
2) 목포대학교 아동청소년주거학전공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g-Hui Hong, Department of Child, Adolescence & Hou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Jeonnam 534-729, Korea E-mail : ggammoo@hanmail.net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Berndt, 1996).

친구관계는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의존하는 개별적인 수준의 관계로 두 명의 특별한 상호선택에 의해 생기는 양자관계이다(윤진, 1984).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한미현, 1996), 집단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된 아동도 한 명 이상의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을 때 부적응의 위험이 낮아진다고(Vandell & Hembree, 1994)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학령기 아동의 사회화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급 또 전체 집단이 아니라 몇몇 친한 친구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친구관계와 적응에 관련된 연구(Berndt, 1989; Berndt & Perry, 1986)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친구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학령기는 유아기에 비하여 부모나 사회의 관심을 덜 받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시기이다(Richards & Duckett, 1994). 아동과 친구라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환경을 연결하는 변인들 중에서 아동이 친구관계를 맺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다. 이는 아동이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최초의 환경이다. 생애초기에 부모가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은 애착이라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애착은 태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양육자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후에 유아가 대인관계의 범위를 넓혀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애착과 관련된 연구들(박상미, 1999; 이주리, 1996; 나유미, 1997)은 주로 모-자관계를 다루고 있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자녀를 훈련시키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사랑을 쏟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이재연, 1998) 아버지와 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Easterbrooks와 Goldberg (1990)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이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즉 아동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황혜정 외, 2003).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동들이 문제행동을 덜 보이고, 책임감이 있었으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며 학교에서도 교사나 친구들과도 잘 지낸다(Macdonald & Parke, 1984).

한편,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은 복잡하고 정교하여 외적인 특성보다 내적인 특성에 집중한다(Harter, 1983, 1985). Harter(1982)는 인간은 8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역량에 대해 영역별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특정한 영역별 판단을 넘어서 자신에 대하여 전반적인 자아가치감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의 자기 역량과 가치에 대한 건전한 지각은 아동의 성취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필수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기초이며, 아동의 인성발달에 핵심적인 요소이다(Coopersmith, 1967; Harter, 1983). 따라서 아동의 역량과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역량지각은 아동의 발달적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부모와 교사 등과 더불어 또래 및 친구와 자기역량지각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오원정, 1999; Berndt & Miller, 1993). 이 연구들에서는 다수의 친구로 구성된 높은 질의 친구관계를 가진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학령기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애착과 자기역량지각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와 모를 구분하여 애착관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아동들의 자기역량지각과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차이점을 조사하며, 부와 모의 애착과 자기역량지각이 친구관계의 질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학년과 성별과 부/모 애착 수준에 따라 자기역량지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학년과 성별과 부/모 애착 수준에 따라 친구관계의 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부/모 애착과 자기역량지각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전남 목포와 무안의 초등학교 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학년이 173명(남아 81명, 여아 92명)이었고, 5학년이 139명(남아 71명, 여아 68명)이었다.

2. 연구도구

1) 부모 애착

부모와의 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 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부와 모의 애착을 발췌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초기 부모와 초기 관계로 형성된 애착이 아동후기에 이르러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IPPA-R은 부모와의 애착을 부와의 애착과 모와의 애착으로 구분되고, 문항수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반응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부모와 애착수준이 높은 것으로 채점된다. 본 연구에서 부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87이고, 모애착의 신뢰도는 Cronbach α=.85였다.

2)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척도

아동의 자기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ater(1985)가 개발한 Self-Perception Profile(SPPC)을 이진화(1993)가 번역,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 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 역량, 신체 외모, 행동 품행과 별도의 위계적 개념인 전반적 자아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은 여섯 문항씩 총 36문항이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 아동이 지각하는 역량이 높은 것을 뜻한다. 자기역량지각의 신뢰도는 Cronbach α=.86 이였다.

3) 친구관계의 질 척도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개발된 이은해와 고윤주(1999)의 '친구관계의 질' 척도(Friendship Quality Scale : FQ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의 기능을 알아보는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 인정, 교제의 즐거움의 6개 영역과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 그리고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

인 갈등과 경쟁 영역의 총 9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4점 척도로서 각 하위척도별 4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92 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한 자료 중 부모 애착 척도 질문지는 응답을 합산한 뒤 애착 수준이 높은 집단(상위 33.3%), 애착수준이 중간인 집단(중 33.3%),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33.3%)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빈도분석과 삼원변량분석, Scheffe 사후검증, Pearson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 α의 값을 구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학년과 성별과 부/모 애착 수준에 따른 자기역량지각의 차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자기역량지각과 그 하위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 학년, 성별에 따른 자기역량지각과 그 하위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 도	3학년 (N=173)	5학년 (N=139)	남 (N=152)	여 (N=160)
	M(SD)	M(SD)	M(SD)	M(SD)
학업역량	2.67(.59)	2.79(.55)	2.68(.59)	2.76(.56)
사회적수용	2.83(.59)	3.07(.56)	2.91(.59)	2.95(.58)
운동역량	2.76(.59)	2.75(.62)	2.83(.58)	2.68(.62)
신체외모	2.63(.57)	2.65(.55)	2.67(.56)	2.61(.57)
행동품행	2.65(.50)	2.78(.45)	2.65(.49)	2.77(.47)
자아가치	2.81(.56)	2.95(.49)	2.88(.54)	2.86(.54)
전 체	2.73(.41)	2.83(.37)	2.77(.40)	2.77(.40)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이 학년, 성별, 부애착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학년, 성별, 부애착 수준에 따른 자기역량지각과 그 하위영역의 비교

척 도	변 량 원	SS	df	MS	F
학업역량	학년(A)	1.13	1	1.13	3.68
	성별(B)	.12	1	.12	.38
	부애착수준(C)	6.59	2	3.29	10.76***
	A×B	.23	1	.23	.75
	A×C	.32	2	.16	.52
	B×C	1.33	2	.66	2.17
	A×B×C	.05	2	.03	.08
사회적 수용	학년(A)	4.79	1	4.79	15.11***
	성별(B)	.00	1	.00	.00
	부애착수준(C)	3.92	2	1.96	6.19**
	A×B	.64	1	.64	2.02
	A×C	.82	2	.41	1.30
	B×C	.12	2	.06	.19
	A×B×C	.41	2	.21	.65
운동역량	학년(A)	.02	1	.02	.06
	성별(B)	2.14	1	2.14	6.16*
	부애착수준(C)	3.64	2	1.82	5.24**
	A×B	.00	1	.00	.00
	A×C	.15	2	.08	.22
	B×C	.96	2	.48	1.38
	A×B×C	1.12	2	.56	1.62
신체외모	학년(A)	.00	1	.00	.00
	성별(B)	.85	1	.85	2.74
	부애착수준(C)	1.55	2	.77	2.51
	A×B	.11	1	.11	.35
	A×C	.36	2	.18	.58
	B×C	2.04	2	1.02	3.31
	A×B×C	.22	2	.11	.35
행동품행	학년(A)	1.32	1	1.32	6.33*
	성별(B)	.40	1	.40	1.94
	부애착수준(C)	4.43	2	2.21	10.64***
	A×B	.68	1	.68	3.26
	A×C	.02	2	.00	.04
	B×C	.97	2	.49	2.33
	A×B×C	.05	2	.03	.12

〈표 2〉 계속

척 도	변 량 원	SS	df	MS	F
자아가치	학년(A)	1.20	1	1.19	4.54*
	성별(B)	.32	1	.32	1.23
	부애착수준(C)	5.49	2	2.74	10.46***
	A×B	.02	1	.02	.06
	A×C	.30	2	.15	.58
	B×C	1.09	2	.54	2.07
	A×B×C	.19	2	.10	.36
전 체	학년(A)	.80	1	.80	5.7*
	성별(B)	.11	1	.11	.77
	부애착수준(C)	3.95	2	1.98	14.03***
	A×B	.18	1	.18	1.30
	A×C	.15	2	.07	.53
	B×C	.75	2	.38	2.67
	A×B×C	.07	2	.03	.23

*p<.05 **p<.01 ***p<.001

자기역량지각은 사회적 역량, 행동품행, 자아가치 그리고 전체 점수에서 학년과 부의 애착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운동역량은 성별과 부의 애착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업역량은 부의 애착수준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였다. 신체외모에 대해서는 독립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의 애착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한 결과, 자기역량지각의 전체 점수(F=14.03, p<.001)와 학업역량(F=10.76, p<.001)에서 부에 대한 애착의 세집단간의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수용(F=6.19, p<.01)은 부에 대한 애착의 상위집단과 중, 하위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운동역량(F=5.24, p<.01)과 자아가치(F=10.46, p<.001)는 부애착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중간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품행(F=10.64, p<.001)은 상, 중집단과 하위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학년과 성별, 모애착 수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기역량지각은 사회적수용, 행동품행에서 학년과 모의애착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학업역량, 신체외모, 자아가치, 전체 점수에서는 모의 애착수준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였다. 운동역량은 성별과 모의 애착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년, 성별, 모애착 수준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F=3.20, p<.05)<그림 1>, <그림 2>가 발견되었다. 모의 애착수준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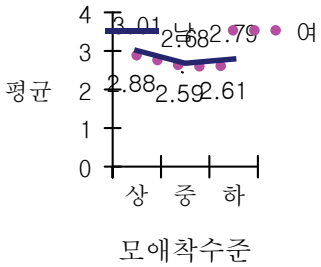
〈표 3〉 부애착 수준에 따른 자기역량지각과 그 하위영역의 사후검증

척 도	집단	N(%)	M(SD)	Scheffe	척 도	집단	N(%)	M(SD)	Scheffe
학업역량	상	106(34.0)	2.93(.63)	a	행동품행	상	106(34.0)	2.87(.54)	a
	중	103(33.0)	2.71(.52)	b		중	103(33.0)	2.72(.44)	a
	하	103(33.0)	2.52(.50)	c		하	103(33.0)	2.52(.39)	b
사회적 수용	상	106(34.0)	3.11(.58)	a	자아가치	상	106(34.0)	3.04(.57)	a
	중	103(33.0)	2.90(.57)	b		중	103(33.0)	2.89(.50)	ab
	하	103(33.0)	2.79(.57)	b		하	103(33.0)	2.68(.47)	b
운동역량	상	106(34.0)	2.90(.59)	a	전체	상	106(34.0)	2.93(.42)	a
	중	103(33.0)	2.71(.59)	ab		중	103(33.0)	2.77(.37)	b
	하	103(33.0)	2.66(.61)	b		하	103(33.0)	2.62(.34)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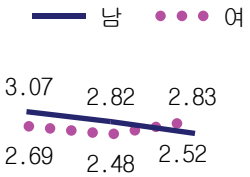
〈표 4〉 학년, 성별, 모애착 수준에 따른 자기역량지각과 그 하위영역의 비교

척 도	변량원	SS	df	MS	F
학업역량	학년(A)	.62	1	.62	2.06
	성별(B)	.26	1	.26	.87
	모애착수준(C)	8.46	2	4.23	14.03***
	A×B	.33	1	.33	1.09
	A×C	.51	2	.26	.85
	B×C	.53	2	.27	.88
	A×B×C	.66	2	.33	1.10
사회적 수용	학년(A)	3.60	1	3.60	11.76**
	성별(B)	.08	1	.09	.26
	모애착수준(C)	7.95	2	3.98	13.00***
	A×B	.78	1	.78	2.56
	A×C	.28	2	.14	.46
	B×C	.12	2	.06	.20
	A×B×C	1.03	2	.52	1.68
운동역량	학년(A)	.04	1	.04	.13
	성별(B)	1.45	1	1.45	4.23*
	모애착수준(C)	4.18	2	2.09	6.09**
	A×B	.00	1	.00	.00
	A×C	.07	2	.03	.10
	B×C	1.42	2	.71	2.07
	A×B×C	2.20	2	1.10	3.20*
신체외모	학년(A)	.06	1	.06	.21
	성별(B)	.48	1	.48	1.62
	모애착수준(C)	6.56	2	3.28	11.13***
	A×B	.06	1	.06	.19
	A×C	.28	2	.14	.48
	B×C	.39	2	.20	.67
	A×B×C	.71	2	.35	1.20
행동품행	학년(A)	.83	1	.83	4.05*
	성별(B)	.64	1	.64	3.11
	모애착수준(C)	6.37	2	3.18	15.48***
	A×B	.76	1	.76	3.60
	A×C	.06	2	.03	.14
	B×C	.09	2	.05	.23
	A×B×C	.01	2	.00	.03
자아가치	학년(A)	.57	1	.57	2.23
	성별(B)	.05	1	.05	.21
	모애착수준(C)	8.65	2	4.32	16.89***
	A×B	.01	1	.01	.06
	A×C	.05	2	.03	.11
	B×C	.78	2	.39	1.51
	A×B×C	.71	2	.36	1.39
전 체	학년(A)	.42	1	.42	3.12
	성별(B)	.00	1	.00	.06
	모애착수준(C)	6.41	2	3.20	23.72***
	A×B	.20	1	.20	1.51
	A×C	.03	2	.01	.09
	B×C	.18	2	.09	.68
	A×B×C	.58	2	.29	2.13

*p<.05 **p<.01 ***p<.001



〈그림 1〉 성별 및 모애착수준에 따른 3학년의 운동역량



〈그림 2〉 성별 및 모애착수준에 따른 5학년의 운동역량

른 집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한 결과 자기역량지각의 전체 점수(F=23.72, p<.001), 학업역량(F=14.03, p<.001), 사회적수용(F=13.00, p<.001), 행동품행(F=15.48, p<.001)에서 모에 대한 애착의 세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동역량(F=6.09, p<.01)은 모에 대한 애착의 상위 집단과 중, 하위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신체외모(F=11.13, p<.001)와 자아가치(F=16.89, p<.001)는 상, 중집단과 하위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2. 아동의 학년과 성별과 부모애착에 따른 친구관계의 질 차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의 질과 친구관계의 질 하위영역에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5〉 모애착 수준에 따른 자기역량지각 하위영역의 사후검증

하위영역	집단	N(%)	M(SD)	Scheffe	하위영역	집단	N(%)	M(SD)	Scheffe
학업역량	상	108(34.6)	2.94(.61)	a	행동품행	상	108(34.6)	2.90(.50)	a
	중	100(32.1)	2.71(.53)	b		중	100(32.1)	2.71(.44)	b
	하	104(33.3)	2.50(.50)	c		하	104(33.3)	2.51(.43)	c
사회적 수용	상	108(34.6)	3.15(.53)	a	자아가치	상	108(34.6)	3.06(.54)	a
	중	100(32.1)	2.92(.57)	b		중	100(32.1)	2.90(.43)	a
	하	104(33.3)	2.72(.59)	c		하	104(33.3)	2.64(.54)	b
운동역량	상	108(34.6)	2.90(.60)	a	전체	상	108(34.6)	2.96(.39)	a
	중	100(32.1)	2.65(.57)	b		중	100(32.1)	2.77(.34)	b
	하	104(33.3)	2.70(.61)	b		하	104(33.3)	2.58(.38)	c
신체외모	상	108(34.6)	2.78(.55)	a					
	중	100(32.1)	2.71(.54)	a					
	하	104(33.3)	2.42(.54)	b					

〈표 6〉 학년,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의 질과 그 하위 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 도	3학년 (N=173)	5학년 (N=139)	남 (N=152)	여 (N=160)
	M(SD)	M(SD)	M(SD)	M(SD)
정서적안정	2.74(.84)	2.95(.91)	2.63(.90)	3.03(.80)
신 뢰	3.22(.78)	3.27(.80)	3.20(.80)	3.28(.77)
도 움	2.65(.73)	2.87(.75)	2.65(.78)	2.83(.70)
친밀감	2.38(.77)	2.69(.86)	2.35(.79)	2.67(.83)
인 정	2.48(.82)	2.57(.85)	2.40(.83)	2.63(.83)
교제의 즐거움	3.41(.62)	3.25(.80)	3.30(.72)	3.37(.70)
갈 등	1.74(.49)	1.67(.43)	1.72(.49)	1.70(.44)
경 쟁	2.08(.90)	1.87(.79)	1.91(.83)	2.05(.88)
만족감	3.37(.65)	3.35(.69)	3.34(.67)	3.38(.67)
전 체	2.94(.45)	3.05(.56)	2.92(.51)	3.05(.4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이 학년, 성별, 부애착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친구관계의 질은 정서적안정, 친밀감에서 학년, 성별, 부의 애착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도움, 교제의 즐거움 그리고 전체의 점수에서 학년과 부의 애착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신뢰, 인정, 그리고 만족감

〈표 7〉 학년, 성별, 부애착 수준에 친구관계 질 하위 영역의 비교

척 도	변 량 원	SS	df	MS	F
정서적 안 정	학년(A)	3.83	1	3.83	6.06*
	성별(B)	8.76	1	8.76	13.84***
	부애착수준(C)	21.23	2	10.62	16.78***
	A×B	.58	1	.58	.92
	A×C	1.08	2	.54	.85
	B×C	3.08	2	1.54	2.43
	A×B×C	3.73	2	1.86	2.95
신 뢰	학년(A)	.34	1	.34	.59
	성별(B)	.07	1	.07	.12
	부애착수준(C)	10.12	2	5.06	8.66***
	A×B	.02	1	.02	.04
	A×C	.27	2	.13	.23
	B×C	1.40	2	.70	1.20
	A×B×C	2.75	2	1.38	2.35
도 움	학년(A)	4.19	1	4.19	9.06**
	성별(B)	1.12	1	1.12	2.43
	부애착수준(C)	16.62	2	8.31	17.96**
	A×B	.10	1	.10	.21
	A×C	.08	2	.04	.87
	B×C	2.35	2	1.17	2.54
	A×B×C	3.74	2	1.87	4.04
친밀감	학년(A)	8.18	1	8.18	14.30***
	성별(B)	6.81	1	6.81	11.91**
	부애착수준(C)	13.65	2	6.83	11.94***
	A×B	.23	1	.23	.40
	A×C	.33	2	.17	.29
	B×C	4.84	2	2.42	4.23*
	A×B×C	4.86	2	2.43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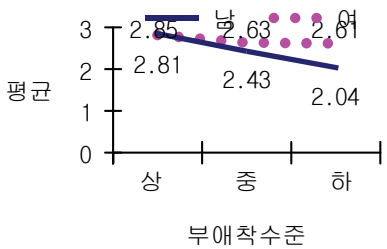
〈표 7〉 계속

척 도	변 량 원	SS	df	MS	F
인 정	학년(A)	1.12	1	1.12	1.92
	성별(B)	1.61	1	1.61	.2.77
	부애착수준(C)	24.72	2	12.36	21.27***
	A×B	.99	1	.99	1.70
	A×C	.02	2	.01	.02
	B×C	1.00	2	.50	.86
	A×B×C	3.61	2	1.81	3.11*
교제의 즐거움	학년(A)	2.38	1	2.38	5.53*
	성별(B)	.03	1	.03	.07
	부애착수준(C)	17.03	2	8.51	19.75***
	A×B	.02	1	.02	.04
	A×C	4.08	2	2.04	4.74**
	B×C	1.65	2	.82	1.91
	A×B×C	.93	2	.47	1.08
갈 등	학년(A)	.35	1	.35	1.63
	성별(B)	.02	1	.02	.09
	부애착수준(C)	.81	2	.41	1.88
	A×B	.00	1	.00	.00
	A×C	.04	2	.02	.08
	B×C	1.02	2	.51	2.36
	A×B×C	.07	2	03	.15
경 쟁	학년(A)	3.71	1	3.71	5.17*
	성별(B)	1.05	1	1.05	1.47
	부애착수준(C)	.02	2	.01	.01
	A×B	1.20	1	1.20	1.67
	A×C	1.06	2	.53	.74
	B×C	1.56	2	.78	1.09
	A×B×C	1.81	2	.91	1.26
만족감	학년(A)	.09	1	.09	.22
	성별(B)	.00	1	.00	.00
	부애착수준(C)	11.53	2	5.77	14.07***
	A×B	.05	1	.05	.12
	A×C	.84	2	.42	1.02
	B×C	1.31	2	.65	1.60
	A×B×C	1.31	2	.66	1.60
전 체	학년(A)	1.04	1	1.04	4.95*
	성별(B)	.69	1	.69	3.26
	부애착수준(C)	9.99	2	5.00	23.74***
	A×B	.00	1	.00	.02
	A×C	.24	2	.12	.57
	B×C	.94	2	.47	2.23
	A×B×C	1.99	2	1.00	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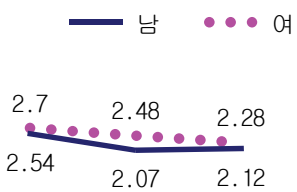
*p<.05 **p<.01 ***p<.001

은 부의 애착수준만 유의하였으며, 경쟁은 학년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였다. 갈등에 대해서는 독립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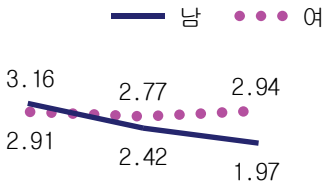
친구관계의 질에 대하여 친밀감은 성별과 부의 애착수준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F=4.23, p<.05)가<그림 3> 나타났으며, 학년, 성별 그리고 부의 애착수준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F=4.25, p<.05)<그림 4>,<그림 5> 발견되었다. 전체의 점수(F=4.74, p<.01)<그림 6>, <그림 7>와 인정(F=3.11, p<.05)<그림 8>,<그림 9>에 대하여 학년, 성별, 부의 애착수준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교제의 즐거움에 대해 학년과 부의 애착수준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F=4.74, p<.01)가<그림 10>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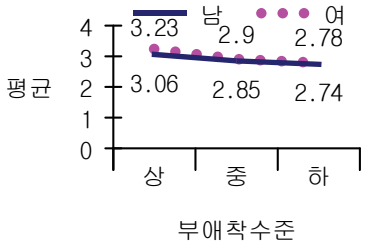
〈그림 3〉 성별 및 부애착수준에 따른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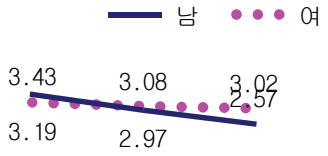
〈그림 4〉 성별 및 부애착수준에 따른 3학년의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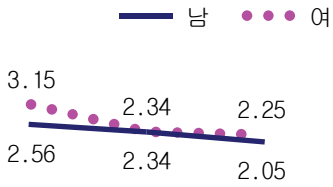
〈그림 5〉 성별 및 부애착수준에 따른 5학년의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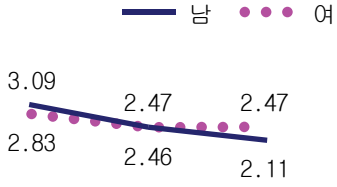
〈그림 6〉 성별 및 부애착수준에 따른 3학년 친구관계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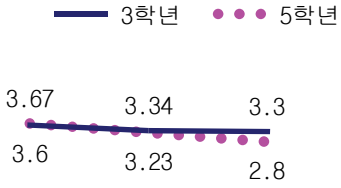
〈그림 7〉 성별 및 부애착수준에 따른 5학년의 친구관계의 질



〈그림 8〉 성별 및 부애착수준에 따른 3학년의 인정



〈그림 9〉 성별 및 부애착수준에 따른 5학년의 인정



〈그림 10〉 학년 및 부애착수준에 따른 교제의 즐거움

부의 애착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 한 결과 친구관계의 질에 전체 점수(F=23.74, p<.001), 정서적 안정(F=16.78, p<.001) 그리고 도움(F=17.96, p<.01)에서 부에 대한 애착의 세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뢰(F=8.66, p<.001), 친밀감(F=11.94, p<.001) 그리고 교제의 즐거움(F=19.75, p<.001)은 상위 집단과 중, 하위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인정(F=21.27, p<.001)과 만족감(F=14.07, p<.001)은 상, 중집단과 하위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에 대해 학년, 성별, 모애착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다.

〈표 8〉 부애착 수준에 따른 친구관계의 질 하위영역의 사후검증

척 도	집단	N(%)	M(SD)	Scheffe	척 도	집단	N(%)	M(SD)	Scheffe
정서적 안 정	상	106(34.0)	3.21(.82)	a	인 정	상	106(34.0)	2.96(.85)	a
	중	103(33.3)	2.81(.81)	b		중	103(33.3)	2.40(.77)	a
	하	103(33.3)	2.46(.84)	c		하	103(33.3)	2.19(.66)	b
신 뢰	상	106(34.0)	3.50(.68)	a	교제의 즐거움	상	106(34.0)	3.64(.58)	a
	중	103(33.3)	3.19(.74)	b		중	103(33.3)	3.28(.64)	b
	하	103(33.3)	3.03(.86)	b		하	103(33.3)	3.09(.78)	b
도 움	상	106(34.0)	3.08(.74)	a	만족감	상	106(34.0)	3.54(.60)	a
	중	103(33.3)	2.72(.64)	b		중	103(33.3)	3.44(.60)	a
	하	103(33.3)	2.44(.71)	c		하	103(33.3)	3.09(.72)	b
친밀감	상	106(34.0)	2.82(.86)	a	전 체	상	106(34.0)	3.23(.50)	a
	중	103(33.3)	2.45(.76)	b		중	103(33.3)	2.95(.45)	b
	하	103(33.3)	2.27(.76)	b		하	103(33.3)	2.76(.45)	c

〈표 9〉 학년, 성별, 모애착 수준에 따른 친구관계 질과 그 하위영역의 비교

척 도	변 량 원	SS	df	MS	F
정서적 안 정	학년(A)	1.81	1	1.81	2.81
	성별(B)	11.32	1	11.32	17.63***
	모애착(C)	24.55	2	12.27	19.11***
	A×B	.53	1	.53	.83
	A×C	.76	2	.38	.59
	B×C	.29	2	.14	.22
	A×B×C	2.32	2	1.16	1.81
신 뢰	학년(A)	.00	1	.00	.01
	성별(B)	.45	1	.45	.78
	모애착(C)	13.89	2	6.94	12.00***
	A×B	.07	1	.07	.11
	A×C	.50	2	.25	.43
	B×C	1.87	2	.94	1.62
	A×B×C	1.99	2	1.00	1.72
도 움	학년(A)	3.36	1	3.36	6.78*
	성별(B)	2.32	1	2.32	4.68*
	모애착(C)	12.18	2	6.09	12.28***
	A×B	.03	1	.03	.06
	A×C	.40	2	.20	.40
	B×C	1.39	2	.70	1.40
	A×B×C	1.22	2	.61	1.23
친밀감	학년(A)	6.64	1	6.64	11.17**
	성별(B)	8.83	1	8.83	14.84***
	모애착(C)	11.66	2	5.83	9.80***
	A×B	.29	1	.29	.48
	A×C	.04	2	.02	.03
	B×C	1.81	2	.91	1.52
	A×B×C	3.79	2	1.89	3.18*
인 정	학년(A)	.40	1	.40	.69
	성별(B)	2.57	1	2.57	4.46*
	모애착(C)	28.99	2	14.49	25.17***
	A×B	1.69	1	1.69	2.94
	A×C	2.47	2	1.24	2.15
	B×C	.96	2	.48	.84
	A×B×C	1.14	2	.57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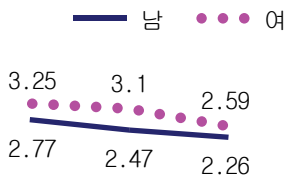
〈표 9〉 계속

척 도	변 량 원	SS	df	MS	F
교제의 즐거움	학년(A)	2.72	1	2.72	6.00*
	성별(B)	.32	1	.32	.71
	모애착(C)	13.54	2	6.77	14.92***
	A×B	.06	1	.06	.14
	A×C	.34	2	.17	.37
	B×C	.39	2	.20	.43
	A×B×C	2.28	2	1.14	2.51
갈 등	학년(A)	.36	1	.36	1.71
	성별(B)	.07	1	.07	.32
	모애착(C)	.87	2	.44	2.06
	A×B	.00	1	.00	.01
	A×C	.34	2	.17	.80
	B×C	1.11	2	.55	2.61
	A×B×C	.96	2	.48	2.26
경 쟁	학년(A)	4.77	1	4.77	6.79*
	성별(B)	.52	1	.52	.74
	모애착(C)	2.28	2	1.14	1.62
	A×B	.77	1	.77	1.09
	A×C	3.01	2	1.50	2.14
	B×C	2.91	2	1.46	2.07
	A×B×C	1.19	2	.60	.85
만족감	학년(A)	.43	1	.43	1.04
	성별(B)	.32	1	.32	.78
	모애착(C)	11.59	2	5.80	14.12***
	A×B	.16	1	.16	.39
	A×C	1.76	2	.88	2.14
	B×C	1.15	2	.57	.139
	A×B×C	2.71	2	1.35	3.30*
전 체	학년(A)	.59	1	.59	2.72
	성별(B)	1.44	1	1.44	6.61*
	모애착(C)	9.89	2	4.94	22.66***
	A×B	.00	1	.00	.01
	A×C	.32	2	.16	.73
	B×C	.22	2	.11	.51
	A×B×C	1.50	2	.75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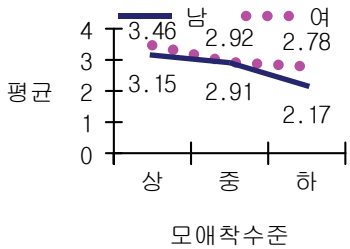
*p<.05 **p<.01 ***p<.001

친구관계의 질은 도움과 친밀감에서 학년, 성별, 모의 애착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정서적 안정, 인정 그리고 전체의 점수에서는 성별과 모의 애착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제의 즐거움은 학년과 모의 애착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신뢰와 만족감은 모애의 애착수준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였고, 경쟁은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만 발견되었다. 갈등에 대해서는 독립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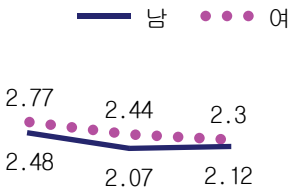
친구관계의 질에 대하여 전체점수(F=3.45, $p<.05$)<그림 11>, <그림 12>, 친밀감(F=3.18, $p<.05$)<그림 13>, <그림 14>, 만족감(F=3.30, $p<.05$)<그림 15>, <그림 16>에서 학년, 성별, 모에 애착 수준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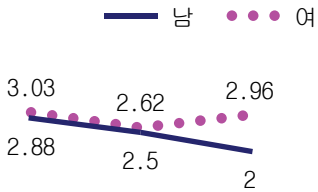
〈그림 11〉 성별 및 모애착수준에 따른 3학년의 친구관계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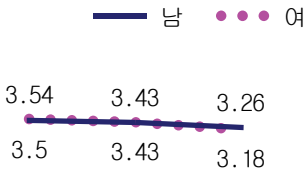
〈그림 12〉 성별 및 모애착수준에 따른 5학년의 친구관계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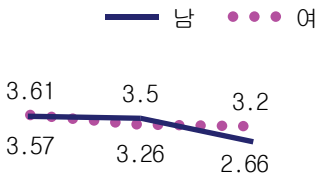
〈그림 13〉 성별 및 모애착수준에 따른 3학년의 친밀감



〈그림 14〉 성별 및 모애착수준에 따른 5학년의 친밀감



〈그림 15〉 성별 및 모애착수준에 따른 3학년의 만족감



〈그림 16〉 성별 및 모애착수준에 따른 5학년의 만족감

〈표 10〉 모애착 수준에 따른 친구관계의 질과 그 하위영역의 사후검증

척 도	집단	N(%)	M(SD)	Scheffe	척 도	집단	N(%)	M(SD)	Scheffe
정서적 안 정	상	108(34.6)	3.17(.79)	a	인 정	상	108(34.6)	2.95(.87)	a
	중	100(32.1)	2.88(.88)	b		중	100(32.1)	2.41(.78)	b
	하	104(33.3)	2.44(.79)	c		하	104(33.3)	2.18(.63)	b
신 뢰	상	108(34.6)	3.50(.64)	a	교제의 즐거움	상	108(34.6)	3.61(.55)	a
	중	100(32.1)	3.23(.77)	b		중	100(32.1)	3.23(.75)	b
	하	104(33.3)	2.99(.85)	b		하	104(33.3)	3.16(.72)	b
도 움	상	108(34.6)	3.03(.75)	a	만족감	상	108(34.6)	3.56(.52)	a
	중	100(32.1)	2.66(.73)	b		중	100(32.1)	3.40(.67)	a
	하	104(33.3)	2.53(.66)	b		하	104(33.3)	3.13(.74)	b
친밀감	상	108(34.6)	2.79(.83)	a	전 체	상	108(34.6)	3.22(.47)	a
	중	100(32.1)	2.43(.82)	b		중	100(32.1)	2.93(.49)	b
	하	104(33.3)	2.31(.74)	b		하	104(33.3)	2.79(.46)	b

모의 애착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검증한 결과, 정서적 안정(F=19.11, p<.001)은 모에 대한 애착의 세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체 점수(F=22.66, p<.001), 신뢰(F=12.00, p<.001), 도움(F=12.28, p<.001), 친밀감(F=9.80, p<.001), 인정(F=25.17, p<.001) 그리고 교제의 즐거움(F=14.92, p<.001)에서 상위집단과 중, 하위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만족감(F=14.12, p<.001)은 상, 중 위집단과 하위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3. 아동의 부/모 애착과 자기역량지각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

부/모애착, 자기역량지각과 친구관계의 질에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에 앞서 부/모애착

〈표 11〉 부/모애착과 자기역량지각, 친구관계의 질의 상관관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정서적 안 정	신 뢰	도 움	친밀감	인 정	교제의 즐거움	갈 등	경 쟁	만족감	친구관계 질(전체)
학 년	.12*	.04	.15**	.19**	.06	-.12*	-.07	-.12*	-.01	.11
성 별	.23**	.05	.12*	.19**	.14*	.05	-.02	.09	.03	.13*
부 애 착	.36***	.27***	.36***	.28***	.39***	.31***	-.09	.03	.28***	.39***
모 애 착	.36***	.30***	.30***	.24***	.36***	.28***	-.07	.07	.31***	.36***
학업역량	.11	.10	.10	.15**	.26***	.05	-.20***	.19**	.12**	.14*
사회적 수용	.30***	.26***	.14*	.25**	.24**	.18**	-.08	.04	.25***	.27***
운동역량	.02	.19**	-.02	.16**	.14*	.02	.06	.12*	.08	.08
신체외모	.10	.05	.03	.12*	.23**	-.01	-.11	.05	.01	.10
행동품행	.08	.06	.10	.09	.13*	.01	-.24***	.02	.04	.11*
자아가치	.15**	.16**	.07	.13*	.17**	.05	-.19**	-.00	.11	.16**
자기역량 지각(전체)	.17**	.19**	.09	.21***	.28***	.07	.18**	.10	.15*	.20***

*p<.05 **p<.01 ***p<.001

과 자기역량지각,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영역, 친구관계의 질과 그리고 친구관계의 하위영역들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애착과 자기역량지각과 친구관계의 질은 그 하위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애착과 자기역량지각과 친구관계의 질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구관계의 질은 성별, 부애착, 모애착, 자기역량지각,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행동품행, 자아가치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은 학년, 성별, 부애착, 모애착, 자기역량지각, 사회적수용, 자아가치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신뢰는 부애착, 모애착, 자기역량지각, 사회적수용, 운동역량, 자아가치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도움은 학년, 성별, 부애착, 모애착, 사회적수용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친밀감은 학년, 성별, 부애착, 모애착, 자기역량지각, 학업역량, 사회적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자아가치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인정은 성별, 부애착, 모애착, 자기역량지각, 학업역량, 사회적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자아가치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교제의 즐거움은 학년은 부적상관으로 나타났고, 부애착, 모애착, 사회적 수용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갈등은 자기역량지각, 학업역량, 행동품행, 자아가치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경쟁은 학년에서 유의한 부적상관이, 학업역량, 운동역량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만족감은 부애착, 모애착, 자아가치, 학업역량, 사회적수용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상관관계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을 학년, 성별, 부/모애착, 자기역량지각,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영역

〈표 12〉 친구관계의 질과 그 하위영역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 종속변인	전체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	갈등	경쟁	만족감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학 년		.07		.14*	.18**		-.16**		-.15*	
성 별	.08	.19**		.09	.20***	.11*				
부 애 착	.27***	.22**	.11	.30***	.22**	.26***	.20**			.15*
모 애 착	.15*	.17**	.21**	.07	.04	.13	.11			.19*
자기역량지각(전체)	-.14	-.24*	-.39**		-.56	.58*		.07		-.28**
학업역량	.02				.14	-.02		-.10	.21***	.09
사회적수용	.24**	.28***	.28**	.01	.27*	-.03	.12*			.31***
운동역량		-.24**	.24*		.26*	-.15			.05	
신체외모					.17					
행동품행	-.06					-.21		-.17*		
자아가치	-.03	.05	.12		.08	-.23		-.05		
R^2	.21	.24	.15	.16	.18	.23	.13	.07	.06	.15
F	8.74***	12.18***	8.18***	10.23***	5.99***	9.03***	9.83***	6.37***	5.75**	8.92***

*p<.05 **p<.01 ***p<.001

아동성별(남학생=0, 여학생=1)은 Dummy변수화 하였음

인 학업역량, 사회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자아가치로 선정하였다.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의하면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은 부애착, 모애착,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력은 21%이다. 이는 부/모애착이 높고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인 수용이 활발할수록 아동은 친구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은 성별, 부애착, 모애착, 사회적수용에 영향을 받고, 영향력은 24%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사회적인 수용이 활발할수록,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은 친구로부터 정서적 안정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신뢰는 모애착, 자기역량지각, 사회적수용, 운동역량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은 15%이다. 아동이 어머니와 관계가 좋을수록, 자기역량을 낮게 지각할수록, 사회적인 수용이 활발할수록, 또 운동역량이 높을수록 친구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 도움은 학년, 부애착에 영향을 받고, 영향력은 16%이었다. 즉 아동의 학년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관계가 좋을수록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지각할 수 있다.

친밀감은 학년, 성별, 부애착, 사회적수용, 운동역량에 영향을 받고, 영향력은 18%이다. 학년이 높을수록, 여학생일수록, 아버지와 좋은 관계일수록, 사회적인 수용이 활발할수록, 운동을 잘한다고 지각할수록, 친구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한다. 인정은 성별, 부애착, 자기역량지각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은 23%이다. 이는 여학생일수록, 아버지와 관계가 좋을수록, 자기역량을 높게 지각할수록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교제의 즐거움은 학년, 부애착, 사회적수용에서 영향을 받고, 영향력은 13%이다. 학년이 낮을수록, 부애착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수용이 활발할수록, 친구관계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석한다. 갈등은 행동품행에 영향을 받고, 영향력은 7%이다. 아동이 올바른 행동이나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고 낮게 지각할수록 갈등이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쟁은 학년, 학업역량에서 영향을 받으며, 영향력은 6%정도이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학업역량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에서 경쟁심이 높다고 해석한다. 만족감은 부애착, 모애착, 자기역량지각, 사회적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들 변인들의 총 영향력은 15%이었다.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자기역량을 낮게 지각할수록, 사회적인 수용이 활발할수록 친구관계의 만족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은 학년과 부/모애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학년이 3학년보다 자기역량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수용, 행동품행, 자아가치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5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자기역량을 낮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들(이주리 · 유안진, 1995; Harter, 1982)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 학년간의 자기역량지각에 대한 차이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여진다.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영역 가운데 운동역량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역량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과(Harter, 1985; 이진화・전경숙, 1995, 이춘재, 1996; 한종혜, 1996) 일치하는 것으로 학령기 남아가 여아보다 운동분야에서 더 나은 행동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아동들은 자기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아동의 부모애착이 자기역량지각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이주리, 1996, Cassidy, 1988; Verschueren & Marcoen, 1999; Verscheleren 등, 1996)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각 하위영역에서 부의 애착수준에 따라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행동품행, 자아가치에서 지각의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모의 애착수준에 따라서는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영역들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운동역량지각은 학년과 성별 그리고 모의 애착수준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이 탐색행동을 촉진시키므로 영아기부터 어머니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학년이 높을 수록 운동역량지각이 높아질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어머니로부터 떨어져서 낯선 환경을 활발하게 탐색하며 호기심이 많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Ainsworth 등, 1978). 이러한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은 성장하면서 성별에 따라 운동역량의 차이를 보인다. 부/모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역량의 지각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자녀의 내재적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친구관계의 질에서 학년과 성별 그리고 부/모의 애착 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5학년이 3학년보다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5학년이 3학년보다 친구관계에서 정서적 안정을 더 느끼고 더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 가까운 친밀감을 가진다. Baldwin (1897)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친구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친밀감을 가진 경우에 그러한 아동은 친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며 그에 따라 친구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안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3학년이 5학년보다 친구관계의 즐거움을 더 느끼고 친구와의 경쟁심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의 즐거움은 이은해・고윤주(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경쟁은 김정윤(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친구와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높이 지각하는 것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들(Epstein, 1973; Bretherton, 1988; Hartup, 1983; Shaffer, 1994)의 연구결과에서 학년에 따른 자기지각의 평가방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정서적 안정, 도움, 친밀감, 인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 친구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친구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의 성차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이은해・고윤주, 1999; 배선영, 1999; Parker, Asher, 1993)의 결과와 일치한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관계에서 정서적 안정을 많이 제공한다는 결과는 이은해(1999), Buhrmester와 Furman(198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친밀감이 높다는 것은 Berndt (1989)의 결과와 일치한다.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관계를 통해 사회정서적 지원을 얻는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남학생은 많은 친구와 피상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여학생은 소수의 친한 친구와 접촉하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을 중요시하며 친한 친구와 깊은 관계를 형성함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부와 모의 애착 수준에 따라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었다. 초기에 형성된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는 아동이 성장하여 경험하는 대인관계인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Melissa와 그 동료들(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동의 긍정적 성장과 부/모의 애착 기여도에 관한 Main과 Weston (1981)의 연구에서는 모와의 애착이 부와의 애착보다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환(1994)도 3세 유아와 아버지간의 애착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안정성과 의존성은 어머니에 대한 안정성과 의존성보다 낮다고 보고하였다. 즉, 아동발달에서 모의 애착이 부의 애착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애착과 자기역량지각은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 부/모의 애착, 사회적 수용지각은 정서적 안정을 주는 친구관계와 상호작용하는 교제의 즐거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다. 모의 애착과, 자기역량지각, 사회적수용, 운동역량은 친구와의 신뢰관계와 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다. 학업역량의 지각은 친구관계의 갈등과 경쟁에 영향을 주고 부/모애착, 자기역량지각, 사회적 수용은 친구관계의 만족감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부/모의 애착과 사회적 수용이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 자신이 친구를 쉽게 사귀며, 친구가 많고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강민주, 1993; 한종혜, 1996)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아동발달에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부/모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긍정적 친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Macdonald & Parke, 1984; Melissa 등, 1999; Paterson 등, 1994)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해석과 활용에 있어 제한점을 밝히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자기역량지각을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지역을 달리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발달적 경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자기역량지각과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보고식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자기보고식 측정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오류의 가능성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친구관계의 대해 자신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동성의 학급 또는 학교 친구를 생각하며 질문지에 응하도록 하였으므로 아동이 실제로 맺는 친구관계에 대한 객관성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친구에 대한 상호지명 방법을 사용하여 친구관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모애착과 자기역량지각이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친구관계에 갈등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친구관계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중요하며 내적요인으로 자기역량지각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강민주(1993).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윤(2000).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학교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유미(1996).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상미(1999).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선영(1999). 아동의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관계망과 아동의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원정(1999).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관계망과 아동의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옥 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 진(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달단계의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 연구, 2(1),* 94-114.

이영환(1994). 3세 유아와 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과 의존성 : Q-Sort 가정 관찰.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7(2)*, 108-118.

이은해 · 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2(2),* 225-242.

이재연(1998). *아동발달.* 서울 : 문음사.

이주리(1996).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역량지각. *대한가정관리학회지, 14(1),* 177-185.

이주리 · 유안진(1991). 가정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9(1),* 131-144.

이진화(1993).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 능력 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춘재(1996). 자기 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 사회적 발달(2) : 인문계와 특수 목적고등학교학생들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9(1).*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종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황혜정(2003). *아동과 환경.* 서울 : 학지사.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 Erlbaum.

Armsden.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Development, 16,* 427-454.

Baldwin, J.(1897). *Social and ethical interpretations in mental development,* New York : Macmillan.

Berndt, T. J.(1989). Obtaining Support from friend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pp. 308-331). New York : Wiley.

Berndt, T. J.(1996). Exploring the effects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pp. 346-365). New York : Coambridge University Press.

Berndt, T. J., & Miller, K. A.(1993). *The assessment and correlates of adolescences' friendships.* Unpublished manuscript, Purdue University.

Berndt, T. J., & Perry, T. B.(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40-648.

Bretherton, I.(1988). Open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 The social self as internal

working model. In R. A. Thompson.(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 Sociemotional Development.*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Buhrmester, D., & Furman, W.(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o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Cassidty, J.(199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6,* 121-134.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H. Freeman.

Easterbrooks, M. A., & Goldberg, W. A.(1990). Security of toddler-parent attachment. Relation to children's sociaopersonaliity functioning during kindergarte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 221-243).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275-385. New York : Wiley.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Hartup, W. W.(1983). Peer relations, In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social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Wiley.

Macdonald, k., & Parke, K, D.(1984). Bridging the gap :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Main. M., & Weston.(1981). The Qua's relationship to mother and father. *children Development, 52,* 932-940.

Melissa, L., Anna-beth, D., & Dorothy, M.(1999). Developmental Patterns in Secur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 Association with 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70,* 202-213.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K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 father, and frien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600.

Richard, M. H., & Duckett, E.(1994).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employment to early adolescent daily experience with and without parents. *Child Development, 65,* 225-236.

Vandell, D. L., & Hembree, S, E.(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Verschueren, K., & Marcoen, A.(1999). Representation of self and social competence in kindergarteners :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70(1),* 183-201.

Verschueren, K., Marcoen, A., & Schoefs, V.(1996). The internal working model of the self, attachment, and competence in five-year-olds. *Child Development, 67,* 2493-2511.

2004년 12월 31일 투고 : 2005년 2월 21일 채택